



#30 케냐, 부르심을 따라서

2024년 3월 7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이사야 35:1-2)

샬롬!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된 후 첫번째 선교편지를 쓰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말에 시작된 우기가 엘니뇨 영향인지 약 2개월간 케냐에 홍수와 폭우로 인한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케냐 전체 약 20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저희 주사역지인 케냐 북쪽지역에도 홍수와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지교회 성도 한 명도 급류에 휩쓸려 소천하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기는 끝났지만 홍수로 인해 곳곳에 다리와 도로가 유실돼서 1월에도 사역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 도로가 복귀되면서 3개월만에 다시 사역지에 들어가게 되었고 작년 11월부터 중단되었던 목회자 부부 훈련과 교회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여러모로 케냐 선교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케냐 선교를 위해서 변함없는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호산나본부교회 예배(2024. 2. 11)

호산나 미니스트리는 약 30여 전에 선임선교사님을 통해 나룩카운티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곳에 본부교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집중해서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신 곳은 라이키피아 지역인데 나룩에서 무려 8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이곳 본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1월5일 향년 84세로 30년 간의 케냐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임선교사님(고 김찬경선교사)이 안장된 곳에 가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30년 간의 사역을 통해서 현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히 잘 감당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은 참으로 역동적이며 늘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지난 3년 여동안 저희가 케냐로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간증을 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호산나 목회자 첫 모임 때 우리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켜 세우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작년까지 2년 동안 7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고 올해도 5개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 라이키피아 지역 호산나교회 목회자 부부 지도자 훈련(2024. 2. 17)

작년 10월에 모임을 가진 후 우기로 인해 사역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성경통독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모임을 갖지 못하는 동안 성경통독을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성경일정을 그룹채팅방에 올려주고 읽고 나면 완료했다는 문자와 함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말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3월 현재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번 성경통독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에 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첫 모임에 목회자 10 가정 중 9 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한 가정은 성도의 장례가 생겨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지난 번 모임 후 다음 모임을 기다렸다고 하였고 그동안 성경통독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일플레이 교회 성도들이 적극 참여하여 점심을 정성껏 준비해 섬겨주어서 금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작지만 일플레이 교회에 스탠드형 선풍기 2대와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의류및 신발 등을 준비하여 섬겼습니다. 이번달 훈련모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강의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적으로 훈련모임을 가지려고 하지만 함께 숙식하며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아쉽지만 매월 1일 모임으로 계속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라이키피아지역에 훈련센터가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나무아래교회 건축프로젝트 4호 : 호산나 오시노니교회

나무아래교회 건축프로젝트 4호 교회로 선정된 호산나 오시노니교회는 일폴레이교회의 지교회로 2022년 10월에 개척해서 학교 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은 푸른 풀 한 포기나 커녕 가시만 가득한 쓸모없는 선인장만 가득하고 자동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제대로 없는 오지에 있는 곳입니다. 매주일마다 멀고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건축을 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부여중앙교회(고성래 목사) 귀한 권사님 가정의 헌신으로 건축을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공예배(2024. 2. 18)

2월 18일(주일), 오시노니교회 기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기가 끝난 후 3개월 만에 다시 사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폭우로 유실되었던 도로들이 복구된 것은 되었지만 안그래도 안좋은 도로 상태는 더욱 좋지 않아서 운전해서 가는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전에 건축한 교회들보다 더 오지에 개척된 교회라서 거리도 멀 뿐만아니라 자동차가 다니던 길이 없어서 중간중간 운전하기에 위험한 곳도 많아서 오랜시간이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오시노니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는 마을 어린이집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점점 가까워지자 성도들이 기쁨으로 춤추며 저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외부인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오지까지 한국 선교사가 친히 찾아와 준것에 너무 감사하다며 극진히 환영해 주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춤추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다가 하나님 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어우는 모습들은 큰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후 커뮤니티에서 오시노니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증해 준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성도들이 삽과 곡괭이로 교회건축을 위한 부지를 정리하며 평탄화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건축부지에 둘러서서 감사 찬양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모두들 이제 2주 후에 이곳에 세워질 예배 처소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공예배를 마쳤습니다.



건축시작에서 완공까지(2024. 2. 19 - 3. 2)

기공예배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한명도 빠짐없이 교회건축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돕고 어린아이들은 건축을 위해서 많은 돌들이 필요하니 조그마한 돌들을 주워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자 주변에서 모래를 담아 나르기도 하고 멀리서부터 물을 길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줄지어 돌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견스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무아래교회 건축프로젝트로 시작된 4호 교회라서 이제 건축 진행은 물 흘러가듯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공사 과정 하나하나 정성껏 하였고 성도들은 옆에서 식사와 차를 때마다 준비하여 주었습니다. 선인장과 가시나무 밖에 없는 황무지에 땅을 파고 하루하루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주일만에 교회 모습이 갖추어진 것을 보면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기적과 같으면서 감격하였습니다.



🏰 나무아래교회 건축프로젝트 5호 : 호산나 마칸두라교회

나무아래교회 건축프로젝트 5호 교회로 선정된 호산나 마칸두라교회입니다. 일플레이교회의 지교회로 2022년 11월에 개척해서 학교 교실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번교회 건축은 검단우리교회(김남영 목사) 귀한 권사님 가정의 헌신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공예배(2024. 2. 25)

2월 25일(주일), 마칸두라교회 기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하여 마칸두라교회가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는 올기르기리학교에 도착하였습니다. 여전히 비포장도로를 운전해서 가야하지만 일플레이 지교회 중에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이라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까워지자 성도들이 여기 저기서 삼삼오오 걸어오기 시작하였고 반가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학교 교실로 이동하는데 담임목회자가 마을에 장례가 나서 아직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사이족들은 씨족중심 공동체라서 어려운일들이 있으면 서로서로 돕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품앗이 같은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모습이 다른 교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마친 후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커뮤니티로부터 기증받은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곳도 지난 주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위해서 땅을 파고 평탄화 작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성도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힘써 도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3월4일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2주 동안 완공을 한 후에 3월 24일에 봉헌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담임목회자로부터 이 지역의 성도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이기에 교회 건축을 위해 봉사하려면 성도들의 큰 희생이 요구되기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특별히 기도요청을 해왔습니다.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선교차량 구입 후원이 절실합니다

3년반 전에 케냐에 왔을 때 주변 선교사님들이 재정만 여유가 된다면 대형 SUV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당장 사역지를 다녀야 될 상황이라서 소형 SUV를 구입하여 사역지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사역지 이곳 저곳 다니면 다닐수록 왜 대형 SUV를 구입해야 하는지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라이키피아지역 교회 첫 방문부터 타이어가 찢어져서 스프링도 바꾸고, 타이어도 바꾸면서 다녔지만 마침내 작년 9월에 자동차 하부가 충격을 받아 핸들이 잠겨서 전화 시그널조차 잡히지 않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오지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기다리며 무려 8시간을 기다린 끝에 견인되어 밤 10시가 넘어서 자동차 고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사역지를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길이 엉망이 되고 여기 저기 물웅덩이와 작은 강들이 생겨서 건너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자동차가 큰 물웅덩이 빠져서 하부에 있는 커버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또한 비가 조금만 와도 하부에 센서와 핸들기어박스 쪽에 문제가 생겨서 핸들이 잠겨버리는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번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운전할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역을 가는 비포장 길에서 조금 큰 돌이 있으면 멈춰서 피해가고 비가오거나 물웅덩이가 있으면 또 차가 멈추면 어떡할까 염려가 돼서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이키피아지역 교회 건축은 점점 더 오지로 들어가고 있고 길은 점점 더 험하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지 교회개척 선교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지만 운전해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제 현재 타고 다니는 차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에 계속해서 직면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긴급하게 선교차량 후원모금이 절실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곳 케냐에서 중고차량 가격은 한국에서 새차를 사는 것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케냐를 보내셨고 제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지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오시는대로 동참해 주신다면 케냐 오지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은행 71669085840109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송금후 반드시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 기도 제목

- 저희 부부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성실과 겸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 오지 지역에 교회 개척과 건축 사역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멀고 험한 길을 오고 갈 때 안전하게 다니며 피곤치 않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선교차량구입을 위한 후원모금이 넉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생명수펀드 사역을 위한 후원모금이 넉넉하게 되어져서 오지 마을에 깨끗한 식수들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접착점이 될 수 있도록
-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의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만남의 축복이 지속되도록
- 딸 예리와 아들 예찬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삶을 살도록

마형갑, 홍은혜 선교사 올림